

[일대일로 맺어진 우리 가족 6] '양육하면서 받는 은혜 엄청나죠'

2001 / 페이지수: 3

신우권 장로의 양육자는 하용조 목사다. 온누리교회가 지어지기 전 가건물에서 하용조 목사는 주일 오후예배 직전까지 20명을 양육했다.

하목사께 양육 받던 시절 그리워

20명이 동시에 양육을 받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좋았던 시간이었다. 이미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제서야 신앙의 기초가 놓인 듯 했고 '하나님', '예수님', '사역', '순종' 등의 단어가 가슴에 새겨졌다.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난 동반자가 김내현장로 부부였다. 신장로는 교회가 양육을 하라고 하니 그저 잘 아는 것 없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당시는 집사였던 김장로에게도 '내가 뭔가 알아서 가르치는 것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서로 은혜받자'고 말했다.

신우권 장로가 일대일양육의 원칙으로 삼는 것은 '자율성'이다. 숙제나 만남도 자유롭게 한다. 온누리교회의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 김장로와 양육을 마치고 나니 김장로는 교수인데다 미국에서 성경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한번도 자신이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열네 부부를 양육했는데 김장로 같은 성도가 참 많았다. 신장로가 양육한 집사들 중에 4명이나 장로가 되기도 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양육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양육을 쉬고 있는 신장로는 "다시 돌아보니 그래도 그 시절이 그리웠다"며 "실수도 참 많이 했을 텐데..."라고 회상한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성도는 박용정 성도이다. 사회에서 출세하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결국은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아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양육을 하면서 신장로의 믿음도 자라났다. 신앙의 기초를 놓아준 일대일 양육. 신우권 장로는 말한다. "뉘어놓고 믿지 말고 알고 믿어야 해요."

일대일은 놓을 수 없는 귀한 사역

'양육을 통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했노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김내현장로는 "온누리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에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한다.

86년 처음 온누리교회에 박을 담은 이래로 끊임없이 양육하고 양육 받는 삶의 물꼬를 터준 신우권 장로와의 일대일.

당시 김장로는 73년에 세례를 받고 14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지 모른 채 살아왔다. 주일 성수가 신앙생활의 전부였음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를 빠지곤 했다. 한번은 주일에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신장로에게 다음 주에는 사정상 교회에 올 수 없으니 일대일 양육을 미루자고 했다. 주일 성수가 절대원칙인 신장로의 그때 녀 잃은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여전히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본을 보이는 신장로 덕에 신앙인의 삶을 배웠다.

그 후에도 좋은 순을 만나게 하시고 양육위원회의 사역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감사하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날마다 신앙은 성장했다.

양육자로서 수많은 동반자를 배출하면서 느끼는 것은 양육이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다. 처음 양육할 때 교수신분인 자신의 능력만 믿고 시작했다가 실패하면서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서두르지 않고 서로 은혜 받으며 양육하는 김장로의 양육의 열쇠는 ‘기도’란다.

신앙의 기초 다졌죠

91년 겨울, 매주 주일이면 주일 오전예배를 모두 마치고 나면 본당 이곳저곳에 사랑의 교제가 넘쳐났다. 삼삼오오 둘러 앉아 일대일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금이야 일대일로 양육을 하지만 그때는 양육자가 많지 않아서 1대 4도 좋고, 1대 6도 좋았다. 속내를 드러내는 교제는 없었지만 알면 알수록 가깝게 느껴지는 하나님 때문에 보람 있었다.

배기영 집사도 김내현 장로와 1대 6의 비율로 양육 받은 사람 중 하나이다. 다행히 6명이 3쌍의 부부이긴 했다. 교재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공부하고 느낌이나 적용은 간단히 했다. 깊이 있는 교제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김내현 장로의 가르침에 깊은 은혜를 맛보았다. 김장로의 살아온 삶의 경험을 먼저 속 시원히 열어 보여주었기 때문에 거리낌도 없었다.

원래 교수를 하며 가르치는 달란트를 가진 장로님이어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본문 내용도 먹기 좋게 요리해서 진행했다.

배집사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였다. 그런 그에게 김장로는 삶의 모델이 되었다. ‘신앙의 틀이 잡히고 온유하고 차분한 김장로의 성품을 닮아야지’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그 많은 인원을 저녁식사를 대접하곤 했다. 일대일양육을 통해 배집사는 “신앙적 기초를 다졌고 지식적 그림이 그려졌습니다”라고 말한다. 만일 선교지나 사역지에 나가게 된다면 이 일대일을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경청하는 달란트가 있다고 칭찬을 들곤 하는 배집사는 “일대일을 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김장로님은 제 신앙의 좌표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한다. 배집사는 양육교육을 받은 성도에게 외치고 싶다.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동반자를 이끌어 주는 목자가 되십시오”라고.

배집사에게 함태현 성도는 첫 동반자였다. 오랜 신앙경력을 가진 동반자였다. 화끈한 성격인 함성도는 언제나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배집사는 함집사를 보며 “참 훌륭한 양육자가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

함성도는 당시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나면 어두웠던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갈 때면 배집사의 마음도 환해지곤 했다.

고향같이 포근했던 양육

“배집사님은 나의 잠긴 마음 열어준 열쇠 같은 분이예요”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런 저런 사정상 자라난 교회를 떠나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다. 피난처처럼.

교회에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으리라 생각했고 어떤 교육도 받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곧 교회를 떠날 것이므로.

그러다가 한해 두해 지나고 보니 공동체에도 속하게 되고 순에서 부순장도 하게 되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일대일 양육을 받을 기회를 놓쳐버린 함성도는 자신이 양육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6년을 지내 왔다. 그러던 중 안수집사로 추천되었을 때에야 그 사실이 드러났다. 부끄럽기도 하고 고민도 되었다. 시간도 없고 할일은 많았다.

그때 자신의 순장이었던 배기영 집사가 떠올랐고 이 사실을 안 배집사는 바쁜 중에도 선뜻 승낙을 해주었다.

결국 안수집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양육을 받으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콤플렉스가 극복되었다.

배기영 집사는 형님같이 편안했다. 일대일 만남이 고향에 돌아온 듯 포근했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 아직 양육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만일 양육을 하게 된다면 배집사처럼 할 생각이다. 신앙 없는 자를 넉넉하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양육자가 되겠다고.

함성도는 배집사가 언제나 든든하다. 지금은 일대일이 끝나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지만 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출처 : 큐티와일대일**